외국인이 한국 대표팀에?…WBC에만 있는 특별규정은

토미 현수 에드먼, 한국 국적 아닌 선수로 대표팀 첫 발탁
WBC는 부모 국적 따라 출전국 선택 가능…전력 끌어올려
KT 주권, 2017 대회 이어 이번 대회도 중국 대표팀 출전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에 승선한 토미 에드먼(28·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한국 야구 역사에 '최초'의 발자국을 남긴다.

한국 국적이 아닌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된 건 에드먼이 역대 처음이기 때문이다.

에드먼은 중간 이름이 '현수'로 풀 네임은 토미 현수 에드먼이다. 그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미국 국적인 그가 한국 야구대표팀으로 국제대회에 나서게 된 건 WBC에만 있는 특별 규정 덕분이다.

'야구의 세계화'를 내세우며 2006년 출범한 WBC는 여느 대회와 달리 선수가 '출전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야구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실제로 야구를 행하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대항전을 벌이게 될 경우 국가별 전력차가 매우 크게 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WBC는 대회 초창기 선수 본인의 국적이나 영주권 혹은 선수가 태어난 나라에서도 출전을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모는 물론 조부모 중 한 명의 국적으로도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WBC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 규정을 활용하면 야구 변방국도 전력을 끌어 올릴 수 있다.

KT 위즈 주권은 이 규정을 통해 2017년에 이어 이번 WBC에서도 중국 대표팀으로 뛴다. 중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권은 12살까지 중국에서 살다 2007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2개 이상의 나라 소속으로 출전한 선수들도 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2006년 초대 대회에서 미국 대표팀으로 뛰었고, 2009년 2회 대회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유니폼을 입었다.

2006·2009년 대회에서 파나마 대표로 출전했던 브루스 첸은 2017년 대회에서 중국 대표팀으로 나섰다.

대회가 거듭되면서 이 특별 규정은 조금 수정되기도 했다. 대회 초창기 때와 달리 지금은 조부모의 국적으로는 출전할 수 없다. 조부모의 혈통까지 인정할 경우 사실상 확인이 힘든 경우 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O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2017년 대회 때부터 바뀌어 적용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티븐 콴(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은 '할머니의 나라'인 일본 대표팀으로 이번 WBC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다. 콴의 부모는 일본 국적을 소지하거나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WBC에서만 볼 수 있는 규정은 또 있다.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WBC는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공 개수도 정해놓고 대회에 돌입한다.

투수의 최대 투구수는 1라운드 65개, 8강전 80개, 4강전과 결승전은 95개 이내로 제한된다.

투구수에 따른 휴식일도 있다. 30개 이상 투구시 1일 휴식, 50개 이상 투구시 4일 휴식, 2일 연투시 1일 휴식을 취해야 한다.

투구수 제한이 있는 만큼 WBC에서는 투수 운용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수들의 효율적인 투구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또 있다.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 전체나 일부에 참가하기 어려울 경우 대표팀은 WBC 조직위원회(WBCI) 승인 후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포수를 제외한 다른 포지션의 선수는 대체 합류하더라도 해당 라운드가 아닌 다음 라운드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포수는 부상으로 인해 팀에 2명 미만이 남을 경우, 교체된 선수가 곧바로 다음 경기부터 뛸 수 있다.

전남 드래곤즈, 2023시즌 등번호 공개

선수단 자율적 협의 통해 결정…발디비아 10번·아스나위 14번

전남드래곤즈(이하 전남)가 다가오는 3월 1일 오후 1시 30분 홈 개막전을 앞두고 2023시즌 등번호를 공개했다.

전남의 2023시즌 등번호는 선수단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장 이후권(16), 부주장 김수범(28), 장성재(6)을 비롯해 고태원(5), 임찬울(7), 이석현(8), 정호진(15) 등 작년과 동일하다.

전남이 영입한 선수들의 등번호는 강민수(4), 하남(9), 발디비아(10), 아스나위(14), 이용재(19), 시모비치(23), 황명현(45)으로 배정되었다.

전남의 10번 등번호를 이어받은 발디비아는 "그라운드에서 등번호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짧고 자신감 넘치는 소감을 밝혔다.

아스나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등번호인 14번을 배정받으며 "전남은 선수층이 탄탄하며 개인 능력이 좋다. 2023시즌에는 더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하여 팀이 승격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가오는 3월 1일 오후 1시 30분에 펼쳐지는 하나원큐 K리그2 2023 전남의 홈 개막전은 입장관중을 위해 아이패드, 다이슨 무선청소기, 다이슨 에어랩, 플레이스테이션5, LG와인셀러 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2023시즌은 코로나 대응 메뉴얼에 따라 경기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육성응원과 음식물 반입/취식 모두 가능하다. 원정석은 S6구역으로 운영되며 남문게이트로 입장이 가능하다.

2023시즌 재도약을 목표하는 전남은 홈 개막전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축구팬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귀요미 거포' 황대인 있어 KIA가 웃는다

2015 신인드래프트서 2차 1라운드 2순위 입단 '미완의 거포' 꼬리표
2021년 첫 두 자릿수 홈런·김종국 감독 부임한 2022년 주전 도약

KIA 김종국 감독이 우타 거포 황대인(27)을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꼽았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의 '인싸력'을 그 무엇보다 높이 평가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2023 스프링캠프를 지휘 중인 김종국 감독은 눈에 띄는 선수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대인을 꼭 찍어 언급하며 "(황)대인이는 우리 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선수다"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 모두 대인이가 말하면 다 수긍하고 좋아한다.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다. 훈련, 경기 모두 대인이가 분위기를 이끈다"라며 "힘들 때는 그런 선수가 꼭 필요하다. 봄이든 가을이든 훈련이 짧든 길든 모두 힘들고 피곤하다. 그럴 때 대인이가 한마디씩 하면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황대인 효과를 주목했다.

황대인은 경기고를 나와 2015 신인드래프트서 KIA 2차 1라운드 2순위로 화려하게 프로에 입단했다.

그러나 좀처럼 잠재력을 터트리지 못하며 미완의 거포라는 꼬리표가 달렸고, 상무군 복무를 거쳐 2020년까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황대인은 2021년 마침내 두 자릿수 홈런(13홈런)을 때려내며 잠재력을 터트렸다.

그리고 김종국 감독이 부임한 2022년 주전으로 도약해 129경기 타율 2할5푼6리 14홈런 91타점 장타율 .401로 1년 전 활약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황대인은 2023시즌 또한 KIA의 주전 1루수가 유력하다.

사령탑은 성격의 변화를 반등 요인으로 꼽았다. 김 감독은 "황대인은 원래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다. 야구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하니까 성격을 바꾼 모습이다"라며 "내면은 약하지만 겉으로 티를 안 내기 위해 더 밝게 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분석했다.

황대인은 밝은 성격에 실력까지 갖추며 이제 KIA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성장했다.

김 감독은 "황대인은 그런 캐릭터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팬들도 더 좋아할 것 같다. 실수하더라도 귀여우면 봐주게 된다"라고 웃으며 "솔직히 대인이가 귀엽고 예쁘지 않나. 성격이 너무 밝다. 밝은 분위기를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라고 무한 애정을 과시했다.

인삼공사, 가스공사에 10점차 뒤집고 승리…변준형, 이대성에 완승

선두 인삼공사, 가스공사에 10점차 열세 뒤집고 승리…가스공사 2연승 끝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10점차 열세를 뒤집으며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잡았다.

인삼공사는 26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가드 변준형과 오마리 스펠맨, 오세근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73·64로 승리했다.

34승(12패)째를 신고한 인삼공사는 2위 창원 LG(28승15패)와 승차를 4경기 반으로 벌리며 정규리그 1위 확정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9위 가스공사(15승29패)는 연승 행진을 2경기에서 마감했다.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6위 전주 KCC(19승24패)와 승차가 4경기 반으로 벌어졌다.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인삼공사는 경기 초반 경기력 난조로 10점차로 끌려갔지만 선두팀의 저력을 발휘하며 뒤집었다.

유력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거론되는 가드 변준형이 3점슛 2개를 포함해 18점 7어시스트로 활약했다.

특히 이대성(가스공사)과 국가대표 가드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대성은 10점 4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필드골 성공률이 22%로 매우 저조했다. 손목 부상을 안고 출전 중이다.

스펠맨과 오세근도 각각 20점 10리바운드, 18점 7리바운드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가스공사에선 이대헌이 22점으로 분전했다. 외국인선수 머피 할로웨이가 부상으로 인해 5분29초밖에 출전하지 못한 게 뼈아프다.

인삼공사는 가스공사의 스위치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어 전반에 31-36으로 뒤졌다.

그러나 3쿼터 들어 오세근을 중심으로 스펠맨, 변준형이 살아나며 분위기를 바꿨다. 오세근이 12점, 스펠맨이 8점, 변준형이 5점(3어시스트)을 몰아쳤다.

58-54로 앞서며 4쿼터를 맞은 인삼공사는 승부처에서 효율적인 압박으로 가스공사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았다. 가스공사는 4쿼터 약 5분 동안 득점을 올리지 못하며 힘없이 무너졌다.

뉴시스

프로농구 인삼공사 변준형 (사진 = KBL 제공)

KIA 이창진·박찬호, 부상으로 일본 캠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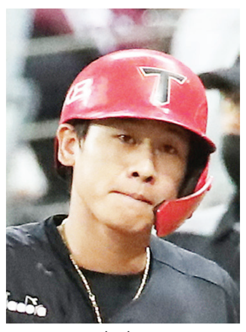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기상 악화로 귀국하지 못했던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6일 저녁 귀국했다.

KIA는 26일 "로스앤젤레스의 기상 악화로 인해 예정됐던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선수단은 현지시간 25일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으며, 26일 오후 7시30분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KIA 선수단은 일본 오키나와 캠프를 차린다. 27일 코칭스태프와 투수조(일부 야수 포함)가 이동하며, 나머지 선수단은 28일 오전에 오키나와로 갈 예정이다.

한편 이창진, 박찬호는 오키나와 캠프에서 빠진다.

이창진



박찬호

이창진은 지난 19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과의 연습 경기 도중 다이빙 캐치를 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을 다쳤다.

박찬호는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측 손목에 불편함을 느껴 검진 차원에서 제외했다.

두 선수 모두 27일 검진할 예정이다.

고종욱, 이우성, 최정용, 장현식은 오키나와 캠프에 새롭게 합류한다.